

트럼프,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잇단 中 때리기

미국 상무부, 1985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자체 조사... 관세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마치고마자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재 개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을 내줬지만 미국 우선 주의에 기반한 무역 정책 기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49.85~59.72%의 반덤핑 관세와 46.48~116.49%의 상계관세를 부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역사적인 심리 절차를 통해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사실을 발견 했다"고 자평했다.

보통 일반 기업의 제조에 의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미 상무 부가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문제삼았던 1985년 이후 처음이다. 상계 관세의 자체 조사를 병행한 것도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9억달러(약 1조원)규모의 알루미늄 합판을 수입한다. 다만 상무부가 예비관정(상계관세 113%, 반덤핑 관세 167.16%) 때보다 세율을 다소 낮췄지만 중간선거 직후 중국에 잇단 수입 규제를 내놓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는 대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제품의 경우 132.63%의 덤핑과 198.49%의 보조금 지급 사실을 적발 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연간 약 2900만 달러(약 324억원) 규모의 대구경 용접관을 수입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2월20일 해당 제품들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무부는 관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석을 민주당에게 내줬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분점하는 정치 구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압박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정책과는 달리 무역정책은 백악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공화당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많은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할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글로벌 경제 부문 선임연구원 필 레비는 7일 폴리티코에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 정책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감안 할 때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통상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중 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무역정책 전문기자인 리인시는 "우리는 중국에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제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가 끝나고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힘을 합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기업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양당 의원들이 힘을 합치고, 당파심을 제쳐두고, 미국 경제 기적이 계속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 농업용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전북센터(이민호 센터장)는 지난 7일 농신보 전북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용 농기계대출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안치홍 사무관, 농업인, 농기계업체대표, 농신보 본부 심사팀 전북센터가 참석, 농기계지원 관련 제도개선 설명과 함께 농업인들에게 지원된 정책 효과, 애로 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 했다.

또한, 위탁금융기관의 애로사항과 농업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 보고 농기계대출 취급 시 특약부여 사항, 농기계대출신용보증비율, 농업정책 자금의 효율적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태 기자



전라북도 6차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이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개최한다.

성남에서 전북 6차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열려

농수산물가공품 143품목 특판전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라북도 6차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북 6차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에는 도내 15개 업체(장류·젓갈·치즈) 등 농수산물가공품 143여 품목 제품을 가지고 다채로운 특판전이 진행 될 예정으로 3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이번 판촉전을 통해 도내 6차산업 우수제

품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전북 6차산업 우수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판촉전을 개최해 농가소득 5천만 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차산업 제품이란 농촌에서 생산하는 1차 농산물을 식품이나 특산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하며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6차산업인증영체나,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기업들의 서울 사무소 역할 '톡톡'

용산역內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탁월한 접근성·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수 급증

전주상공회의소는 용산역사 4층에 위치한 전북 비즈니스라운지가 전북 기업들의 서울 사무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이용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에 개소해 광주, 전남이 운영 중이던 비즈니스라운지는 전북이 공동운영 협약을 하면서 지난 9월 14일 개소, 4월부터 도내 기업인들의 이용이 가능해졌고 보다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

전북 비즈니스라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회의실 3개와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PC, 복합기 등을 마련, 간단한 다과 준비로 휴식 공간, 미팅의 장소로도 손색이 없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기업인 외, 도내 유관기관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라운지는 (월~금)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시설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탁월한 접근성과 맞춤형 서비스로 라운지의 편의성이 점점 소문이 나며 지난 5월 60명, 6월 60명에 불과하던 전북지역 이용자 수는 리모델링을 마친 9월에는 103명, 10월에는 203명이 찾았다.

라운지 이용객 중 "업무상 서울과 경기지역에 잦은 출장으로 급한 업무를 보거나 기차 대기시간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생겨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선홍 전주상의회장은 "전북도 기업들이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를 발판삼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건설공사 누계 수주액 전년대비 상승

새만금사업 등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 증가 효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지난 9월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발주, 수주 건수는 967건으로 전년동기(940건) 대비 2.9% 증가했고 발주 누계 액은 전년대비 1조 8,156억원에서 2조 7,037억원으로 48.9% 증가했으며,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누계 액은 전년대비 7,464억원에서 9,418억원으로 26.2% 크게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 건수와 누계 수주액이 상승된 주요 요인으로는,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 2공구: 3,394억)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1~8공구: 1조4,813억) 총10건 대형공사의 발주(총1조8,207억)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전북 도내업체의 수주액 증가의 주된 요인은, 그 동안 협회와 전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향적으로 마련하

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준 결과이다"며,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관계자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피력 했다.

특히, 실제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1, 2공구) 및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대형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최소10%, 최대31%까지 크게 확대되어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출범으로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공공매입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